

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로 정보 제공 중단

주택도시개발부 '영어 전용' 의무화 지침 내려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 단일 언어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모든 부처 서비스에 '영어 전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HUD 엔드루 휴즈 부장관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적으로 영어 사용 국가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부처 지도부에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0년 8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했던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 개선' 명령을 철회한 것이다. 당시 명령은 연방 기관과 연방 자금을 받는 단체가 영어가 서툰 이들에게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 HUD는 앞으로 모든 소통, 서신, 발간 자료는 영어로만 제작되며, 비영어 번역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shutterstock

휴즈 부장관은 메모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며, 한 목소리와 한 언어로 HUD의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며 "저렴한 주택 확대, 취약 계층 지원, 농촌·도시·원주민 공동체 재건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HUD는 지난해 7월 연방주택청(FHA)을 통해 19종의 단독주택 모기지 관련 문서를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로 번역해 제공한 바 있다. 이는 영어가 서툰 대출자나 주택 상담자들이 FHA 보증 모기지

관련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이 같은 다국어 지원은 중단된다.

다만 HUD는 장애인법(ADA)이나 여성폭력방지법(VAWA) 등 특정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차별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영어 외 언어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휴즈 부장관은 "HUD는 여전히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HUD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각·시각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D 지도부는 현재 사무실에 비치된 모든 비영어 번역 서비스 안내물(인쇄물·디지털 자료 포함)을 제거하도록 지시받았다. 휴즈 부장관은 메모에서 "앞으로 HUD의 모든 소통, 서신, 발간 자료는 영어로만 제작되며, 비영어 번역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DOJ)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메모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공유된 언어는 다양한 배경을 넘어 미국인을 하나로 묶는 공통 기반이 된다"며 "이는 연방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공적 담론과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통합을 강화하는 미래 지향적 전략이며, 모든 주민이 영어를 배우고 받아들여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거주 비자 발급 때 반미 성향 심사

SNS 게시물까지 확대, 반미 활동 여부 검토 추가

트럼프 행정부는 19일 미국에 거주하려는 신청자의 심사를 진행할 때 소셜미디어를 포함해 '반미 성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발표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고 "반미 활동 여부에 대한 검토가 심사 과정에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저서는 "미국의 혜택은 이 나라를 경멸하고 반미적 이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안 된다"며 "USCIS는 반미주의를 뿌리 뽑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고, 철저한 심사와 검증 조치를 최대한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은 반미주의를 정의했지만 당시에는 주로 공산주의자를 겨냥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 이들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강화해왔다.

새로운 이민 심사 지침에 따르면 당국은 신청자가 "반유대주의적 이념을 옹호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 지구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는 학생과 대학을 반유대주의로 비난했으나, 활동가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행정부가 수백 명의 유학생들의 법적 지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했다가 몇 주 뒤 다시 복원했으며, 5월에는 학생 비자 인터뷰가 일시 중단됐다. 이어 6월에는 유학을 신청하는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셜미디어 검증 조치가 도입됐다.

새 조치에 따라 외교관들은 비자를 발급하기 전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토해 "미국 국민, 문화, 정부,

제도, 건국 원칙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어떠한 징후"라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591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3에 있습니다)

3		2	6	4	8
8			1		9
	9	4	7		2
4			7	3	
3		1		7	
5	6				1
6		3			5 7
8	5				
7		1	4	2	6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스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T.562.279.4200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